

무안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박차

2개 사업 전남도 공모 선정

농식품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역기업 커뮤니티...70명 고용

무안군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전남도에서 공모한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돼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은 무안군 내 예비창업자,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 상품 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사업대상자 11명을 선정해 9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기업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취업연계 등 구인을 용이하게 하여 관내 고용시장의 안정적 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5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상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23년 2-3월 사업대상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8-9개월간 진행되며, 사업 종료 시에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관내 고용시장의 특성을 바탕으로 작·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더 효율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안군 구직자, 구인기업과 항상 소통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진도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잔류농약 분석 안전 먹거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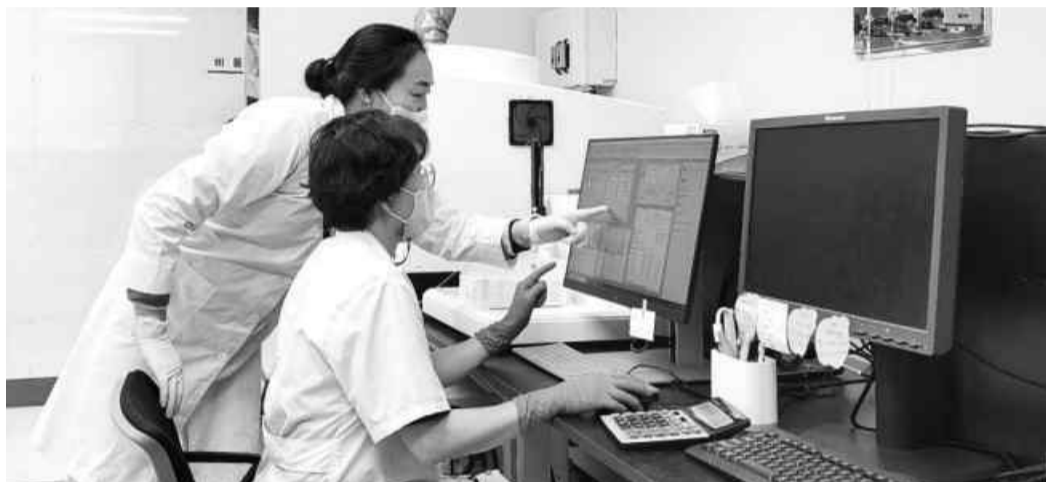
진도군은 올해 1월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이 의뢰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 463종을 분석한다.

군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4억원을 확보해 333㎡ 규모로 총 463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기체질량분석기, 액체질량분석기 등 23종 39대의 분석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해 결과에 따라 수확시기와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유통 중 적발되는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조성 할 계획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시험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이다. 농산물안전분석실 관련 문의는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으로 하면 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학영농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

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내 안전먹거리 공급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사랑상품권 연중 10% 인센티브 지급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할인

영광군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올해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은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평시 5%, 명절(명절 포함 및 그 전·후) 10% 할인 판매하며, 영광사랑카드는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로 연중 10%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금 역의 유통방지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영광사랑상품권은 도입

4년여 만에 2023년 1월 기준, 판매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2022년에만 전 군민 1인당 100만 원 재난지원금 지원 등 각종 정책 수당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1년 만에 판매액 108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역 화폐 국비 지원 감소 등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지원율을 대폭 축소 조정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영광사랑카드 연중 10% 인

센티브 지급을 결정하였다"며 코로나 장기화 여파 및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경기와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지역 화폐 국비 예산 지원 방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일반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차등 지원하며, 영광군이 속한 인구감소지역은 할인을 10%를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비 지원이 결정되면 군비가 그만큼 줄어들 예정으로 열악한 군 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시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18~64세 참여자 915명 모집

목포시가 2023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가상승과 고물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모집기간은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915명을 선발해 다음달 6일부터 오는 6월 16일(일부사업 8월 18일)까지 공일 조정 및 관리,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등 65개 사업에 배치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자는 접수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64세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자 ▲실직·폐업한 자 ▲장애인 및 가족 ▲결혼이민자 등에게는 선발에 가점이 부여된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해남군,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속도

올 국·도비 137억원 확보

신규 4곳 등 17개 지구 정비

해남군이 2023년도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도비 137억원을 확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산재된 마을이 많아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 및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올해 신규사업 4개지구와 계속사업 17개 지구 등 총 21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해남읍 안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이며, 나머지 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구별 사업규모는 ▲해남읍 안동 하수관로 6.2km(배수설비 260가구) ▲삼산 신기·감당지구 하수처리시설 230㎡/일, 하수관로 12.8km(배수설비 517가구) ▲복일 갈두지구 하수처리시설 30㎡/일 하수관로 0.9km(배수설비 60가구) 등이다.

2023년에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3건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2건이 준공 예정으로 8개 마을 493가구 1200여명의 주민이 생활환경 개선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수도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국비 등 사업예산 확보를 통해 더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이 다년간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전남도 제1호 산림치유 'K-웰니스 도시' 선정

한국웰니스산업협회 인증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산림치유 부문에 2023년 전남도 제1호 'K-웰니스 도시'로 선정됐다.

'K-웰니스 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웰니스 도시임을 민간 대표 웰니스 단체인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신청 지자체의 웰니스산업 육성 의지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총 16개 분야를 전문가의 심사로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됐으나 2020년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2021년 재개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웰니스 관련 인프라 및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의 웰니스산업 육성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표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일자 : 2023. 01. 25.(수) 장소 :



김미자 한국웰니스산업협회 회장이 우승희(왼쪽) 영암군수에게 인증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K-웰니스 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해당 권역을 대표하는 웰니스 도시로서의 권위를 가지며, 웰니스협회는 'K-웰니스 푸드 & 투어리즘 페어', '베트남 K-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엑스포' 등 국내외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시 'K-웰니스 도시' 선정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홍보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삶의 휴식,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영암군이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힐링도시가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웰니스 스타이션 조성사업, 숲속 웰니스 설치사업, 웰니스 생태관광사업 등 산림치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산업 특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

기자 노트

시민공청회가 중요한 이유

사업자 선정 등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뼈저렸던 목포자원회수시설(소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시민공청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2차 시민공청회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1차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2차 시민공청회는 각 분야 전문가, 소각방식별 시공사 4명이 패널로 참여해 사업방식(재정, 민간투자), 소각처리방식(스토커, 열분해) 운영 및 효율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감소를 위한 대기오염물질저감시설 등 총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소각방식의 안전성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스토커 방식'을 사실화하면서 "폐기물처리에만 급급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스토커 방식은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납과 카



장봉선 서부지역본부 차장

드롬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타 방식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토커 방식의 소각로 설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해 이번 시민공청회가 நட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낸 주민설명회(2020년 12월 1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2021년 5월 28일), 자원회수(소각)시설 1차 시민공청회(2022년 12월 28일) 등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추진할 경우 제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할 계획이다.

자원회수시설의 가장 좋은 점은 버려지는 열을 다시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오염물질 배출량도 적어 환경오염이 적다는 이 시설에 대해 목포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까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시가 이 사업에 대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총사업비 979억원(국비 419억, 민자 560억)이 투입되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1일 처리용량 220t 규모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jbs@kwangju.co.kr



신안군, 목포역~버스터미널 광역버스 운행

신안군은 오는 다음달부터 신안군 광역버스(1004호, 20004호, 3004호)가 목포시 비상 수송기간 종료 시까지 목포버스터미널~목포역 노선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천사대교(암태~압해) 개통과 함께 신안~목포 간 대중교통 운행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 사항이었지만, 운수업체 협의의 불발로 지금까지 목포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해 왔다.

이에 양 사·군의 상생발전 저해 및 대교 개통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로 신안에서 목포역까지 버스 연장 운행의 끊임없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목포시와 협의를 통해 신안군이 목포역까지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KTX 이용 편리 및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목포시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한 상황에서 교통 불편 일부 해소는 물론 KTX를 타고 신안군 관광이 편리해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목포역까지의 버스 운행이 한시적 운행(목포시 비상 수송기간 종료 시까지)이라는 점은 아쉬운 해결 과제로 남는다고 밝혔다.

신안~목포(버스터미널) 간 광역버스는 신안군 직영 버스로 목포역을 경유하여 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한다. 7대의 광역버스가 1일 2회 운행하며 목포역~터미널 구간 요금은 무료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저소득 독거노인 1300명에 난방비 20만원씩 지원

신안군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독거노인 1300여 명에게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긴급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경제 위기, 한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신안군 저소득 독거노인 13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구입하여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도 확인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세얼굴

“종합안전망 구축 해양사고 예방에 전력”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

“서해바다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27대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해철(54) 총경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종합해양안전망을 구축해 해양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직인 모두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키고 해양경찰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신임 목포해경서장은 해남고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 경찰간부후보생(48기)으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 통영해경서장,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교무과장,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운영지원과장 등 주요 보직 역임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